눈치 피알 꾸밈

(행24:10~27)

10.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1.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12.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 그들이 기다리는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눈치 피알 꾸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 살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뭘까요? 타인 속에 있는 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비치는 나! 다른 사람 생각 속에 있는 나! 실제 나보다는 타인 속의 나를 위해 우리는 평생 애쓰다 죽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타인 속의 나를 위해 우리가 마음을 쓰는 형태는 대충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눈치 보기지요. 우리들이 단체사진을 볼 때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모습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든 내 모습이 잘 나왔는지가 제일 궁금한 법이지요. 그런데 사진 속에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권력자가 있으면 우리 눈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먼저 찾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권력자라면 직속상사나 지도교수님 아니면 기가 제일 센 친구 등등을 말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내 위에 있는 권력자를 찾아 사진에서 조차 눈치를 보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잘 찾아낼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감정도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방이 지금 화가 났는지를 잘 눈치 챈다고 합니다.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경우,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 또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때에는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해 본데요. 표정을 그대로 베낌으로써 감정도 베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지요. 경험상 뭐 따라 하지는 않지만 밤새도록 사장님이나 교수님 그것도 아니면 애인의 표정을 생각하며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쩌나 걱정해 보신적은 다들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 속의 내 모습에 거부감이나 인상 찌푸릴 일이 없기를 바라며 남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둘째는 피알 하기입니다. 한 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최고의 겸양지덕으로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즉, 남이 보는 앞에서는 언제나 한 발 물러서는 자세로 있으면서 홀로 있을 때 조용히 자기 실력을 쌓고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야흐로 자기 피알 시대PR(Public Relation)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그만큼의 사람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만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속으로 능력과 실력이 많더라도 남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 남에게 알리고 선전함으로서 나의 재능을 과시하는 것이 내 자신은 물론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타인 속의 내가 능력자요 필요한 자의 모습이길 원하는 겁니다.

셋째는 꾸미기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공격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타인 속의 내 모습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타인 속의 나를 가능한 한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 내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표정과 말과 제스처로 속마음과는 다른 가면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적인 나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선 짙은 화장을 한다든지 옷을 선정적이고 도발적으로 코디한다든지 하는 비교적 사소한 일에서부터 허위 학력이나 경력 등을 들이대는 등의 위중한 거짓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 속의 우리 자신을 꾸미려 합니다. 한 마디로 이제는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감추어지고 사장 될까 봐 그것을 드러내는 자기 피알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실적인 나와 관계없이 단순히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내 겉모습만을 임의대로 만들어 내는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2)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신앙인은 타인 속의 나를 위해 즉 타인의 눈과 생각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위해 어떤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까요? 위의 세 가지를 마찬가지로 사용할까요 아니면 어느 한두 가지에 국

한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살펴봅니다.

가이사랴의 총독부에 구금 되어있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등과 함께 온 변호사 더둘로의 논고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자기 변론의 기회를 허락합니다. 피고의 입장이 되어 법정에 서서 자기 변론을 한다는 것이 뭘 뜻합니까? 그야말로, 타인 속의 나의 모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에서 권력자인 재판장이나 배심원의 눈치도 살펴야하고 자기 속에 있는 정직성과 근면성 등 하여간 뭐든지 호감을 자아낼 만한 요소를 강력하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필해야 할 뿐 아니라 어찌하든지 무죄 판결에 유리한 내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의 입장에서 자기 변론이라는 것이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변론은 결코 변론이라 할 수가 없는 변론입니다. 우선 그 내용은 앞서 이루어진 변호사 더둘로의 논고에 준하여 구성 되어있습니다. 가는 곳 마다 전염병 같이 소요를 일으킨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며 성전을 더럽히려 하였다는 것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고발에 대한 변론이라면 결국 반박의 성격을 띠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박이 지나치게 중립적입니다. 억울함이나 분함 아니면 적극적으로 승소하겠다는 열정 등 격앙된 감정이나 결연한 의지 같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행해진 고발의 내용들이 지니는 허점을 드러내기 위해 냉정하고 예리한 논리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변호사 더둘러가 행한 논고에서 제시된 요점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독부 재판정에 들어와 있는 타인들 그 누구에게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단지 예루살렘에 온지 열두 날 만에 구금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지적에 대해선 내용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즉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주로서 믿는 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 자신은 오직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3)　바울의 자기 변론은 이처럼 자기와 관련된 단순한 사실들의 꾸밈없는 나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 보기도 없습니다. 자기 피알의 흔적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노력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언급 외에는 얼마든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할 자기 방어의 의지가 바울의 변론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애착이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을 통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

여주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음가짐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이 땅 위에서 타인을 관계할 때 그 타인의 속에 있는 나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타인 앞에서 내가 거부 될까봐 눈치 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나를 능력자로 덕이 있는 자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에 내 실제와는 다른 이미지를 각인 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타인 속의 나로부터 자유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타인 속의 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타인속의 나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이면에는 또 다른 아주 귀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나만을 신경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은 죄인으로 여김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면 말입니다. 타인 속의 나는 영영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걸까요? 누구도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든 아무 상관 안한다는 말입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단지 나는 나와 관계된 사실만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은 자유로움 이전에 나 자신의 사회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편으론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는 아닐까요?

바로 여기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답게 타인 앞에서 눈치 안 보고 피알 안하고 꾸미지 않은 채 사실만을 드러내며 삽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접한 타인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든 형성 될 것이잖아요? 어떠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궁금하지요. 그냥 타인의 성향에 따라 내 모습이 달라질까요. 긍정적이 사람은 좋게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나쁘게 말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타인 속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뜻과 섭리에 따라 그 것에 적합하게 그 사람 속에서 나의 모습을 결정하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에스더가 민족의 멸절의 위기를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로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심히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것 같이 말입니다. 또한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기회를 만드신 것처럼 말이지요.

5) 결국 총독 벨릭스는 판결을 유보한 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총독부 감옥에 구금합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들이 돌보는 일을 자유로이 하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지요. 10년에 걸친 세 차례의 선교여행 동안 참으로 숫한 핍박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사도바울의 몸이 어디 몸이었겠습니까? 쉬게 하신 것입니다. 지인들의 사랑과 돌봄 아래 말이지요. 더구나 이제 바울은 그 당시 세상 특히 파레스틴 아시아 마케도니아 어디

를 가도 유대인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 총독부 감옥처럼 안전한 곳은 다시없습니다.

자기 변론의 시간에 타인 앞에서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피알하지 않았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타인 속의 나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습을 그려 내셨습니다. 죄를 확정할 수 없는 자로, 2년 동안 구금할 자로, 혹시 돈을 뇌물로 얻을 수도 있을지 몰라서 자주 가까이 부를 자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또한 아마도 총독부 관저의 벼슬아치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사실 만을 말한 바울의 변론을 통해 벨릭스 안에서 바울의 모습을 그려 내시면서 벨릭스로 하여금 로마 선교에 앞서 바울에게 필요한 휴식과 재충전과 준비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6)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타인 속의 나 때문입니다. 눈치 보랴 피알 하랴 꾸미랴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다 소모 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본다고 개선되지도 않고 피알 한다고 뜻 한대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내 딴엔 꾸민다고 하는 대도 뭐 그리 반응이 신통치도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눈치가 죽고 피알이 죽고 꾸밈이 죽어야 합니다. 그냥 필요한 순간이 되면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접한 타인들의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는 하나님이 결정 하십니다. 그 모습이 부정적으로 그려져서 나의 대적이 되든지 아니면 정 반대의 경우가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든 저러든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모습을 그리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서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에게 비쳐지는 나의 모습만을 기억해서 십자가의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게 부족한 모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